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

최병두*

요약 최근 지구화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국제 노동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으로 이주해 오는 이주노동자들의 송출국 특성을 파악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수용국들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노동이주의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을 우선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차이 요인과 관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 지역의 국제 이주 요인에 관한 분석 및 이에 따른 영향과 전망, 과제 등을 다룬 다른 논문의 선행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 노동이주에 관한 주요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차이 요인과 관계 요인을 개념적으로 고찰한 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노동이주의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들을 다룰 것이다.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첫째, 197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는 목적지의 변화는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둘째, 송출국과 유출국의 유형 변화와 더불어 이주형태 및 경로도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되었으며, 셋째, 저기능 노동이주가 주를 이루면서 상당 부분 여성으로 구성되며, 대체로 일시적 순환적 이주로 구성되고, 넷째, 미등록(불법)이주자가 상당히 많으며 수용국의 정책에 따라 변동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노동권 및 인권 억압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주요어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 이주의 차이 요인과 관계 요인

* 대구대, 지리학, bdchoi@daegu.ac.kr

1. 서론

최근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에서 주요한 국제 노동이주의 유입국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국제 이주자의 대부분은 동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이주의 전개과정과 국가별 특성 및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을 단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고찰할 경우, 국제 이주에서 송출(또는 유출)국의 특성이나 그 영향 그리고 국제 이주를 연결해 주는 우리나라와 송출국 간의 관계 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국제 노동이주의 송출국들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제 노동이주 수용(유입 또는 목적)국과 그 동안의 과정 및 현재 상황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수와 인구 수(약 38.8억명, 세계인구의 55%)를 가진 대륙이며, 이에 따라 국제 이주(유입 및 유출 모두)에서 아시아인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지구화 과정에 따라 상품과 자본, 기술과 정보의 세계적 흐름이 급증하고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노동이주자의 수가 급증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아시아인들의 국제 노동이주는 더 크게 증가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을 새로운 '유동적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윤인진 외, 2010).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이주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송출국에서 출발하여 수용국으로 입국하는 과정, 즉, 국제 이주 과정에 관한 연구와 국제 이주자가 수용국 내에서 생활하는 과정, 즉,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진다. 국제 이주 과정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접근방법이나 이론들(예로 배출흡인론, 신경제학적 접근, 노동시장분절론, 사회적 자본론, 이주체계이론 등)에 바탕을 두고 전개

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이나 이론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세부 주제들은 결국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 이주의 조건으로서 국가적 특성들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결과로서 국가별 영향과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노동이주에 초점을 두고 첫째, 이주의 전개과정과 이의 일반적 특성, 둘째, 국제 이주를 조건지우는 국가적 요인과 이에 따른 영향 그리고 앞으로 전망과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논문의 서술과정에서 분량의 문제로 이 주제들을 구분하여 전자는 이번 논문에 다루고, 후자는 다음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 절에서 국제 이주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간략히 검토해 본 후 이에 관한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방법론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국제 이주의 차이 요인과 관계 요인을 개념적으로 서술한 후, 그 다음 절들에서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 이주의 전반적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들을 다루고자 한다.

2.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에 관한 재이해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노동)이주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 유형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들 간 관계와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노동이주의 변화 및 특성을 다루는 연구이다. 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 최영진(2010)은 동아시아 노동이주 과정의 다층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주와 발전과의 연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주체계이론에 근거를 둔 이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노동이주의 형태,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이주노동자들의 해외송금이 지역 및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고 있다. 윤인진(2010)의 연구 역시 동아시아 국제 이주의 현황과 특성을 다루면서, 이주의 배경으로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주의 현황, 개발과의 관계, 이주와 인권 및 초국가주의·다문화주의의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동아시아를 지역적 차원에서 다루면서도 개별 국가들 간을 비교하거나 또는 특정한 주제와 관련시켜 고찰한 연구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로, 문남철(2006)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 속에서 노동의 국제적 이동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정남(2007)은 동북아 국가들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과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인구이동을 관련시켜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고 최호림(2010)이나 미우라 히로키(2011)은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의 현황이나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관한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를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으로서 지역경제의 통합과정과 동아시아 국제 이주 체계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은 예로 핀드레이와 존스(Findlay and Jones, 1999)의 연구처럼 이미 1990년대부터 제시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아난타와 아리핀(Ananta and Arifin, 2004), 헤위슨과 영(Hewison and Young, 2006)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연구로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 유형의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개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이주의 유입 또는 유출의 현황과 구체적 내용들을 다룬 것이다. 예로, 최병두(2011)는 다문화공생 정책 및 담론에 초점을 두고 일본의 다문화사회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제시했다. 동아시아의 개별 국가들의 국제(노동)이주를 다룬 연구들은 매우 많지만, 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거나, 공통의 관점에서 각 국가들의 국제 이주 특성을 다룬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또 다른 예로, 란(Lan, 2006)은 타이완의 가사 이주노동자와 이들을 새롭게 고용하면서 등장한 이른바 ‘글로벌 신데렐라’(Global Cinderella)를 다루고 있으며, 리와 룰루-버거(Li and Roulleau-Berger, 2012)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중국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국제 이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국제 노동이주에 관한 연구는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 다룬 연구들과 서로 보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윤인진 등(2010)의 연구처럼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룬 연구에서도 개별 국가들에 관

한 연구들이 함께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문헌들에 관한 검토는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에 관한 연구 대상과 주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최근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국제 노동이주를 어떠한 이론적 배경에서 접근해야 하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 분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시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서구에서 제시된 이론이나 연구방법론을 원용하여 이 지역의 국제(노동)이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문 역시 일단 서구 사회에서 제시된 기존의 이론들을 검토하여 이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국제 노동이주를 촉진한 구조적 배경으로 간주되는 지구화 과정 속에서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 및 관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의 전개과정, 특성, 그리고 이주 요인 및 그 영향, 앞으로의 전망 및 과제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노동이주는 임금 및 고용기회의 격차, 경제발전 또는 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해 빈곤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는 국제 이주에 작용하는 복잡한 구조적/행위적, 거시적/미시적 요인들을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 국제 이주는 단지 빈국에서 부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유엔(UN) 인구분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세계의 국제 이주 스톱을 보면 총 2억 1300만명이 자신이 태어난 출신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¹ 이 가운데 빈국(남부 국가)에서 부국(북부 국가)으로 이동한 경우는 전체 35%이고, 부국에서 부국으로 25%, 빈국에서 빈국으로 34% 등 상당수의 국제 이주는 국가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물론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남부 국가에서 태어나 북부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 수의 증가율은 85%로 전체 국제 이

1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국제 이주자 수(스톱)는 1970년 약 8200만명에서 2005년에는 1억 900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세계 수출량은 7배 이상 증가했고, 해외직접투자는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최근 국제 이주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상품이나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세계 전체 인구에서 국제 이주자 수는 1960년 2.9%에서 2005년 2.9%로 증가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구소련의 해체에 따른 것이다.

주자(스톡)의 증가율 38%에 비해 훨씬 높았고, 이에 따라 2010년 국제 이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도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남부국가에서 남부국가로의 이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 국제 이주는 매우 다양한 이유와 배경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 이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국가에서 비교적 발전한 북부국가로의 국제 노동이주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동아시아 국제 이주의 전반적 전개과정과 더불어 송출국 및 수용국의 이주 요인과 이에 따른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와 같이 국제 이주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 동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노동)이주는 가장 거시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구화는 상품, 자본, 기술 등의 국제적 거래의 자유화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가로지르는 노동의 이동성을 증대시킨다. 물론 노동의 국제적 이동의 증가는 상품이나 자본, 기술 거래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노동은 단순한 국제적 거래의 대상이라기보다 노동력을 보유한 인간의 인격성과 주체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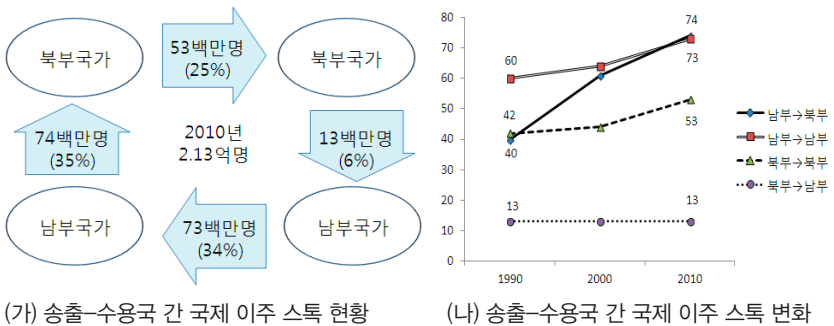


그림 1. 송출국과 수용국 간 국제 이주의 스톡 현황 및 변화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 2012.

때문이다. 또한 지구화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주권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노동의 국제이동은 송출국 및 수용국 양자 모두에 많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국가의 통제 및 관리가 필수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이주는 자본주의 경제(그리고 문화)의 지구화에 통합된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최병두 외, 2011, 제1장). 그 이유로서, 우선 지구화 과정에 의해 촉진되는 상품 무역과 자본의 해외직접투자의 증대는 국제 이주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외 상품의 교역은 국제 이주의 잠재적 인구에게 수출/수입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제 해당 상품의 생산 및 소비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 연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초국적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의 자본과 기술, 경영과 유치국에 건설된 생산설비와 생산품 그리고 이를 위해 고용된 현지 노동자로 하여금 상호행동과 이해 등 상호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게 된다(문남철, 2006).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은 이와 같이 상품 및 노동 시장의 통합을 촉진하지만, 또한 동시에 국가들 간 경제적 격차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 과정은 자유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 분업체계의 변화와 각국의 경제적 재구조화 과정을 추동시켰으며, 이로 인해 자국의 시장경제에 통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국제 이주를 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 과정에 직접 조건 지워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에 부수되는 환경의 변화도 국제 이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지구화 과정에 동반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국제 이주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텔레비전과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의 이용 확대는 이주 전에도 실시간에 세계적 정보에 접할 수 있고, 이주과정을 보다 손쉽게 하며, 이주 후에도 본국과의 의사소통과 정보교류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구화 과정에서 국가 역할의 변화도 국제 이주를 장려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과정 속

에서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 지구화 과정에 우선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정책이나 전략들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들 가운데 주요한 방안이 국내 유희노동력을 국제적으로 이주시킴으로서 실업률을 완화하고 또한 이들의 해외 취업을 통해 얻게 된 송금을 외화 수입과 국가 재정의 주요한 원천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구화 과정의 어두운 측면으로, 국제 이주 자체가 상업화되었고, 이로 인해 국경 주변에 다양한 형태(이주 알선, 중개업, 심지어 인질 등)의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었다.

물론 이러한 지구화 과정은 국제 노동이주를 줄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예로 무역의 증가는 기존의 노동이주 수용국뿐만 아니라 노동이주 송출국의 경제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국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인구 유출의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성장은 기존 노동이주 송출국의 고용 확대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의 노동 수용국이 직면했던 저임금 노동력의 수요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양국간 국제 노동이주의 필요성을 줄여줄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첨단기술산업이나 생산자서비스산업(예로 금융산업)의 경우, 표준화된 지식집약적 서비스부문을 해외로 외주를 줌으로써 기존의 노동 송출국에서도 비교적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예로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카리브연안 국가들의 단순 전자처리 업무활동의 증가 등). 이와 같이 기존의 노동이주 송출국과 수용국이 지구화 과정 속에서 촉진되는 상품 및 해외직접투자의 증대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국제 노동이주는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 이주의 거시적 배경으로서 지구화 과정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국가들 간 어떻게 국제 이주의 송출과 수용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국제 이주가 이루어지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특정한 이주 요인 및 이들 간 관계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국제 이주에 관한 국가 수준의 연구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세부적 접근방법이나 이론들로 구분될 수 있다(표 1)(석현호, 2003; 최영진, 2010).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가별 노동이주의 현황 및 관련된 정책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지만 국제 노동이주가 단순히 한 국가의 특성이나 정책에 기인하기보다는 송출국과 수용국 간 차이 및 이들 간 관계에서 유발된다는 점에서 송출국과 수용국간 차이 요인과 이들 간 관계 요인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 이주의 송출국과 수용국 간 차이 요인은 흔히 인식되는 바와 같이 양국 간 임금이나 고용기회의 차이, 나아가 경제발전이나 소득 및 생활의 질의 격차로 인식될 수 있다. 국제 노동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에 관한 고려는 흔히 신고전경제학 일반 또는 배출-흡인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배출요인은 과잉인구(노동력), 낮은 임금, 고용기회 부족 등을 포함하며, 흡인요인은 노동력 부족, 높은 임금, 풍부한 고용기회 등으로 구성된다. 송출국과 수용국 간 격차를 강조하는 이러한 접근은 양국 간 국제 이주를 일반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지표들의 차이만으로 국제 노동이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출-흡인이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국제 노동이주의 송출국과 수용국 각각이 처해 있는 조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표 1. 국제 노동이주의 요인

요인	송출국과 수용국 간 차이 요인			송출국과 수용국 간 관계 요인		
	격차 요인	송출국 요인	수용국 요인	미시적 관계	거시적 관계	중범위 관계
주요 지표	국제 이주의 송출국과 수용국 간 임금, 고용기회(실업), 경제발전, 생활수준 등의 격차	이주하는 개인·집단·지역의 경제·사회적 위험 대처, 실업 및 일시고용 대처, 부(송금)유입	노동(경제활동인구) 부족, 노동시장분절에 따른 저숙련노동 부족, 고령화에 대처	양국 거주 개인 또는 집단 간 관계의 역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역사회 연계	양 국가 간 사회경제적 관계: 식민지/모국 관계, 무역 및 투자, 정치적, 문화적 유대	기업의 초국적 활동, 정책적 관계(양 국가 간 제도적 합의), 중개업자(브로커)의 역할
이론	배출·흡인이론	신이주경제학	노동시장 분절론	사회적 자본론	이주체계이론	-

있다. 우선 송출국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의 수준이 낮고 사회복지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국가의 국민들은 국제 노동이주를 통해 가구 소득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소득원의 분산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즉, 송출국에서 국제 이주를 감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은 높은 임금을 얻으면서도 임금의 출처를 다양화하여, 가족의 생계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는 기존의 이론은 흔히 이주노동의 신경제학이라고 불린다. 국제 노동이주의 공급(즉, 송출국)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신이주경제학에 의하면, 송출국은 노동시장이나 복지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실업이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 노동이주를 이해한다. 또한 국제 이주는 국가간의 임금 격차가 없어지더라도 완전히 중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로의 국제 노동이주는 자국 내 다른 지역 노동시장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상태에 있다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석현호, 2003: 18).

국제 노동이주에 관한 연구는 그러나 단지 송출국의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국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수용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 이주노동의 유입은 자국 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성의 증대와 가격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한 국가의 경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전문숙련 노동자들의 확보를 위해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지만, 노후화된 부문들의 미(또는 저)기능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의 노동시장은 자본 및 기술 집약도가 높고 주로 고기능노동자들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과 노동집약적이고 임금수준이 낮은 저기능 노동자들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고, 국내 노동자들은 1차 노동시장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은 결국 국제 이주 저기능노동자들로 충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분절론은 수요 측면, 즉, 수용국의 상황으로 인해 국제 노동이주가 촉진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발전국가들이 시장경제를 간섭하는 외부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최영진, 2010). 즉,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의 정부가 저기능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절된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국제 이주노동의 유입을 허용하고 적절히 관리·통제하고자 한다.

국제 노동이주를 유발하는 이와 같은 송출국과 수용국의 격차 또는 각 국가의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인구)구성의 차이는 왜 개별 국가에서 국제 노동이주의 유입 또는 유출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왜 특정한 양 국가 간에 국제 노동이주의 유출-유입이 이루어지는가라는 의문은 양 국가 간 직접적 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두도록 한다.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관계는 개인적(미시적), 거시적(국가적), 중범위(제도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관계는 이주의 연쇄로 나타난다. 국제 이주는 이주대상국의 일자리에 대한 신뢰할 정보나 지식의 획득, 이주를 위한 여행 과정의 설정, 그리고 이주 후 거주할 지역에서의 생활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지원은 흔히 잠재적 이주자와 개인적 관계를 가진 가족, 친구, 같은 지역 출신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원 경로를 통해, 앞선 이주자들이 비교적 만족스럽고 안전하게 이주한 국가나 지역으로 다음 이주자들이 연쇄적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국제 이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친족, 친구, 동향인 등의 대인 관계를 통한 이주 연결망은 잠재적 이주자의 사회적 자본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이주의 비용과 위험이 감소하고 경제적, 사회적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주의 잠재성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이주연결망은 흔히 정부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따른 이주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다.

국제 노동이주의 유출과 유입을 직접 연결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거시적 관계이다. 양 국가 간의 거시적 관계는 양 국가 간의 상품 교역이나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식민지와 식민모국 간의 관계나 이념적, 군사적 동맹관계와 같은 정치적 관계, 그리고 언어나 종교, 생활양식의 유사성이나 친근감과 같은 문화

적 관계도 포함한다. 상품의 수출입이나 해외직접투자는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양 국가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이로 인해 잠재적 이주자들이 상대 국가의 상품 이용과 초국적 기업 활동에 대한 인식을 통해 관련 정보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피식민/식민관계로 인해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양 국가 간 과거의 역사적 관계도 국제 이주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 외 정치적 및 문화적 유대관계(예로 한류)도 잠재적 이주자들로 하여금 상대 국가 출신의 이주자들에 대해 더 호의적이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양 국가간 이주를 촉진하는 배경이 된다. 이와 같이 거시적 수준에서 양 국가간 관계에 초점을 두는 이주체계이론은 거시적 수준에서 국제 이주의 배경으로서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에 형성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의 국제적 연결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국제 노동이주의 송출국과 유출국 간 관계를 직접 연계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중범위 수준에서 작동하는 행위자들이다. 예로, 송출국에서 잠재적 이주자들은 직접적으로 상대 국가에서 투자한 초국적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이 기업의 경영자들은 현지 활동을 통해 본국에서 필요한 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범위 수준에서 작동하는 주요 행위자는 정부(의 관료)이다. 최근 국제 노동이주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거버넌스체제가 발달함에 따라, 국제 노동이주의 대부분은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쌍방 협정을 통해 양국 정부가 인정한 제도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합의를 통해, 송출국은 자국 노동자의 국제 이주를 원활히 하고 해외 체류기간 동안 안전을 보장 받으며, 수용국은 국제 노동이주의 유입을 적절히 통제하고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송환이나 추방을 정당화하게 된다. 그러나 관료적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높은 이주비용과 긴 대기시간을 요하게 될 경우, 이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는 사조직들이 등장하고, 이주자들을 도와주는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들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전자의 경우 송출국과 수용국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해결해 주고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불법적)

경로를 통한 노동이주를 유발함으로써 이주자의 인권과 복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국제 노동이주의 배경이나 유발 요인들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배경이나 요인들 각각에 관한 설명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여기서 이들에 관해 재론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나 요인들이 각각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면적, 다차원(다 규모)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국제 노동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어떤 주요한 부분, 즉, 국제 노동이주가 송출국 및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이 간과되어 왔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제 이주와 국가 발전 간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로, 세계에서 빈국과 부국 간 저기능 노동자의 임금은 20배 이상 차이가 나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국제 노동이주가 3% 증가하면 모든 무역 흐름의 완전한 자유화보다도 세계 소득 증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Lucas, 2008). 특히, 국제 노동이주는 수용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송출국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노동이주 자체가 국가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이주와 발전 간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주는 발전을 야기하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의 일부분인 내생 변수이자 추가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이주와 광범위한 발전 과정은 상호적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영진, 2010: 198).

따라서 국제 노동이주가 송출국이나 수용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결정적으로 제시할 수 없으며, 경험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점(그동안 흔히 잘못 인식되어 왔던 점)으로, 첫째, 국제 노동이주는 송출국과 수용국 양자 모두에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국제 노동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수용국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채, 송출국에게만 유리한 것처럼 접근·서술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제 노동이주의 수용국도 분명(최소한 단기적으로, 특히, 자본의 입장에서)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송출국은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을 얻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둘째, 국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수용국의 사회문화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실제 증거는 없다. 한국이나 일본은 국제 노동이주를 수용하면서도 이로 인해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 훼손되고 심각한 사회문화적 문제들(예로, 범죄, 질병 등)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이 국가들에서 국제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회문화적으로 안정된 서구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말레이지나 싱가포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매우 낮다(물론 후자의 일부 국가들에서도 이주노동자들로 인한 문제들이 심화되고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3.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의 전개과정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간 인구이동은 물론 전근대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윤인진 외, 2010). 그러나 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서구 선진국들의 식민 지배 등으로 인해 근대사회로의 전환이 늦었고, 이에 따라 근대적 의미(즉, 상품화된 노동력)로서 국제 노동이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이에 따른 해방,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진입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해방과 이에 따른 사회공간적 혼란에 의해 발생한 국제 인구이동의 시기를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인 국제 노동이주는 크게 2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² 첫 번째 시

2 최영진(2010)은 Battistella(2004)를 인용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이주노동을 1973~1986년 걸프국가들이 건설경기 활성화로 대부분의 이주를 수용하던 시기, 1987~1997년 걸프전쟁 후 중동으로의 이주는 감소하지만 동아시아로 이주가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노동이주가 감소한 시기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고 몇 년 후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연속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기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서 1990년대 전반까지로 중동국가들로의 국제 이주가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이후 중동국가들로의 이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일본과 더불어 신흥 공업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들어서게 된 동아시아 국가들(대표적으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로의 노동 이주가 크게 증가하게 된 시기이다.

사실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동·동남아시아에서 노동이주의 유출은 상당히 미미했으며, 실제 이 지역에서 국제 노동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대체로 197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그림 2).³ 1976년 이 지역의 주요 노동이주 유출국이었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서 유출된 것으로 공식 기록된 이주노동자 수의 합은 약 10만 명이었다. 그러나 1980년 65.6만명으로 증가했고, 1985년에는 284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했고, 1990년에는 314만명, 그리고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이었던 1996년에는 41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국제 노동이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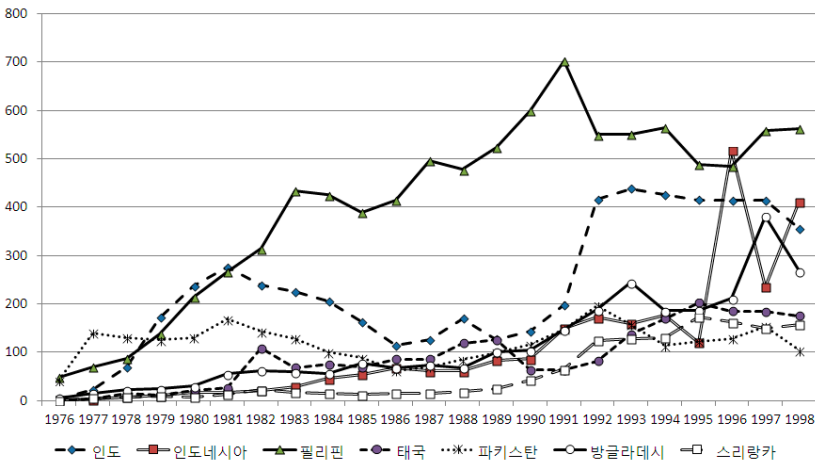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유출 (단위: 천명)

자료: Wickramasekera, 2002, 17.

3 그러나 Martin(2009.3)에 의하면, 아시아 전체 이주노동의 수는 1960년 2850만명으로 기록된다 (윤인진, 2010: 58) 이 수치는 아시아지역 외 국가들의 유출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이주 유출국의 목적지별 구성비

(단위: 천명, %)

유출국	목적지	1993			1998		
		유출자	중동	아시아	유출자	중동	아시아
방글라데시		244.5	94.1	5.9	267.7	60.0*	40.1
인도		438.3	96.7	3.3	355.2	93.4**	6.6
인도네시아		160.0	57.6	42.2	411.6	69.4	30.6
파키스탄		157.7	99.7	0.3	104.0	96.2	3.8
필리핀		550.9	74.9	24.1	562.4	47.1	48.3
스리랑카		129.1	93.2	6.8	158.3	96.7	3.3
태국		137.9	12.2	84.7	175.4	9.3	64.4

자료: Wickramasekera, 2002, 17.

* 1997년 자료, ** 그 외 지역유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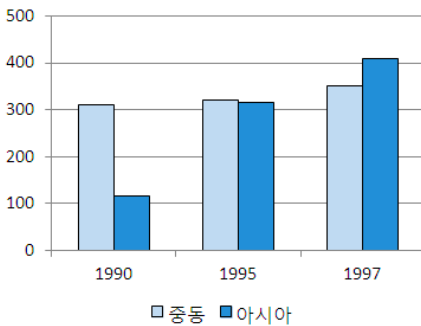


그림 3. 동아시아 국가들(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합계)의 목적지별 노동이주 유출 (단위: 천명)

자료: Wickramasekera, 2002, 17

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국가는 필리핀으로 연간 노동이주 유출자 수는 1976년 약 5만명에서 1997년에는 55.9만명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전반까지 이러한 노동이주의 목적지는 대부분 중동국가들이었다. 1973년 발발했던 유가폭등으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확보하게 된 중동국가들은 건설업 및 가사 서비스 등을 위하여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이 지역으로 대규모 노동이주가 발생했다. 이러한 노동이주의 흐름은 그 이후 석유가격의 상대적 하락과 더불어 1990년 발발했던 걸프전쟁과 그 이후 중동국가들 간 정치적 갈등

과 불안으로 인해 다소 줄었지만, 그 이후에도 남아시아 국가들(특히,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로부터 중동 국가로의 노동이주는 상당 정도 지속되었고(표 2), 현재에도 중동 국가들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노동이주의 주요 목적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로부터 노동이주 가운데 중동국가들로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그림 3),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하게 된 국가들, 즉,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로의 이주 흐름이 증가하게 되었다.⁴

1997년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한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국가적 경제 침체는 위기 국면 자체에서는 유출국의 해외 노동이주를 다소 감소시키기는 했지만, 그 이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체로 노동이주의 유출은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즉, 2000년 중반 아시아 주요 국제 노동이주 유출국들에서 국외로 나간 이주자 수는 2006년 370만명, 2008년에는 693만명으로 최고조에 달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서 2010년에는 436만명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 시기에도 필리핀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동이주 유출을 기록하여, 연간 노동이주 유출자 수가 1998년 56.2만명에서 2005년 74만명, 그리고 2009년에는 100만명을 넘었고, 2010년에는 112.4만명에 달하게 되었다(표 3).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앞의 두 국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과 2008년에 연간 80만명 이상의 노동이주 유출을 기록했고 그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는 중국과 더불어 네팔과 베트남이 새로운 노동이주 유출국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많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남아시아의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국제 노동이주의 유출은 다소 줄어

4 Stalker(2000)에 따르면, 걸프 협력기구의 7개국에 이주자 수는 1975년 1.1백만명에서 1990년 5.2백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ILO에 의하면, 1997년 아시아 발전국들(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6.5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Wickramasekera, 2002, 14).

표 3. 국가별 해외노동자 유출 추이

(단위: 천명)

	199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여성(%)	아시아 내 이주(%)
방글라데시	267.7	253	382	833	875	475	391	7.1	11.5
중국	-	343	351	372	427	395	411	-	-
인도	355.2	549	677	809	849	610	641	-	3.2
인도네시아	411.6	-	680	697	645	632	576	64.3	58
네팔	-	-	205	249	220	294	355	2.9	31.4
파키스탄	104.0	142	183	287	432	404	365	-	1
필리핀	562.4	740	788	811	974	1,092	1,124	54.5	23.6
스리랑카	158.3	231	202	218	250	247	266	49.1	5.8
태국	175.4	140	161	162	162	148	144	17.8	60.5
베트남	-	71	79	85	87	73	86	-	62.9

자료: 1998년, Wickramasekera, 2002, 15; 2005년 이후 OECD 2012, 182

들었다.

이와 같이 동·동남아시아 유출국들의 국제 노동이주는 물론 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로의 유출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아시아 주요 유출국들에서 유출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상당수는 걸프협력국들로 이주하고 있으며, 아시아 내 수용국들 중에는 어느 국가에 더 많이 가는가는 송출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로, 2010년 100만명 이상의 국제 노동이주를 기록한 필리핀의 경우, 약 66만명이 걸프협력국으로 이주하며, 다음으로 약 10만명이 홍콩으로 이주하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2011년 걸프협력국들로 약 20만명이 이주하였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인접국들, 즉,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대만 및 홍콩으로 많이 이주하였다. 걸프협력국으로의 유출을 제외할 경우, 파키스탄의 노동이주는 일본으로, 태국의 경우는 대만으로 많이 유출되었다(표 4).⁵

5 표 4에 의하면, 최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아시아 외 지역의 OECD국가로 유출한 노동이주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전체 국제 이주자들의 대륙별 스톡(누적된 현재 거주자)을 보면, 아시아 국가 출신의 국제 이주자(스톡)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서 가장 많지만(4610만명), 유럽 및 북미 거주 국제 이주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900만명 및 1420만명)(부표 1).

표 4. 최근 아시아 이주노동자 송출국들의 수용국별 유출

(단위: 천명)

송출국*	연도	목적국		아시아 비OECD				걸프 협력국	아시아 외 OECD	중동 및 북아프리카**	기타
		아시아 OECD		대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네팔	2010/11	4	1	-	-	-	106	241	1	1	0
방글라데시	2010	3	0	-	-	39	1	287	7	37	15
인도네시아	2011	11	2	76	50	48	134	204	19	5	15
스리랑카	2010	5	0	-	-	1	4	228	2	16	1
태국	2011	11	9	48	3	11	4	18	23	3	5
인도	2010	-	-	-	-	-	21	610	0	4	6
파키스탄	2008	2	45	-	22	16	2	421	4	1	1
필리핀	2010	12	6	37	101	70	10	661	73	22	82
베트남	2010	9	5	28	-	-	12	8	0	0	14

자료: OECD 2012: 169(대부분 각 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록된 수치임)

주: * 중국이 빠져 있음. **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는 걸프협력국들(GCC)을 제외함

다른 한편, 아시아 수용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1990년 이후 지역별, 국가별 체류외국인수(스톡)는 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증가했지만, 남, 서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걸프협력국으로의

부표 1. 대륙별 국제 이주자 스톡(stock): 2010년

(단위: 백만명)

수용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합계	유출지역 구성비(%)
아프리카	15.5	4.0	7.7	0.0	1.7	0.4	29.2	13.6
아시아	1.0	46.1	19.0	0.3	14.2	1.7	82.6	38.6
유럽	0.8	7.8	37.3	1.5	9.0	2.4	58.7	27.4
중남미	0.0	0.6	3.9	4.6	23.5	0.1	32.8	15.3
북미	0.1	0.5	0.9	1.0	1.4	0.2	4.1	1.9
오세아니아	0.0	0.1	0.3	0.0	0.3	0.9	1.6	0.7
기타	1.8	2.1	0.9	0.2	0.0	0.1	5.1	2.4
합계	19.3	61.3	69.9	7.7	50.0	6.0	214.2	100
유입지역(%)	9.0	28.6	32.6	3.6	23.3	2.8	100	

자료: UN., 2012, Population Facts.

이주노동의 유출은 상당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에 중동국가들로 집중되었던 국제 노동이주는 동남아시아 인접국가들이나 동북아시아의 신흥 선진국들로 다양화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동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명을 상회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 200만명 이상 또는 그 정도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표 5). 그리고 표 5의 통계와는 다르지만 실제 한국과 태국에 2010년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외국인 인구가

표 5. 아시아 지역 및 국가별 외국인 인구

(단위: 천명, %)

	1990		2000		2005		2010	
	외국인 인구수	총인구 %	외국인 인구수	총인구 %	외국인 인구수	총인구 %	외국인 인구수	총인구 %
동, 동북아시아	4,484	0.33	5,716	0.39	6,185	0.41	6,485	0.32
중국	376	0.03	508	0.04	590	0.05	686	0.05
홍콩	2,218	38.29	2,669	39.35	2,721	39.96	2,742	38.87
일본	1,076	0.88	1,687	1.34	1,999	1.58	2,176	1.72
한국*	572	1.33	568	1.24	551	1.17	535	1.11
한국**	50	0.12	491	1.07	747	1.59	1,261	2.50
동남아시아	3,060	0.69	4,838	0.92	5,624	1.00	6,715	1.13
말레이시아	1,014	5.57	1,554	6.64	2,029	7.77	2,358	8.30
싱가포르	727	24.11	1,352	34.49	1,494	35.02	1,967	38.67
태국	387	0.68	792	1.25	982	1.47	1,157	1.67
남, 서남아시아	21,346	1.71	16,933	1.11	15,181	0.92	15,715	0.88
방글라데시	882	0.84	988	0.76	1,032	0.73	1,085	0.73
인도	7,493	0.86	6,411	0.61	5,887	0.52	5,436	0.44
파키스탄	6,556	5.86	4,243	2.94	3,554	2.24	4,234	2.44
네팔	431	2.26	718	2.94	819	3.00	946	3.16
이란	4,292	7.82	2,804	4.29	2,062	2.96	2,129	2.88
터키	1,150	2.13	1,263	1.99	1,334	1.96	1,411	1.94

자료: UN Population Division; IOM, 2010; Iguchi, 2012.

주: 1) 지역별 국가 선정은 외국인 인구수 5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함.

2) 이 자료는 여러 문헌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있지만, 한국 자료(*)는 분명 잘못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한국 자료(**)를 추가했음. 대만은 원자료에서 빠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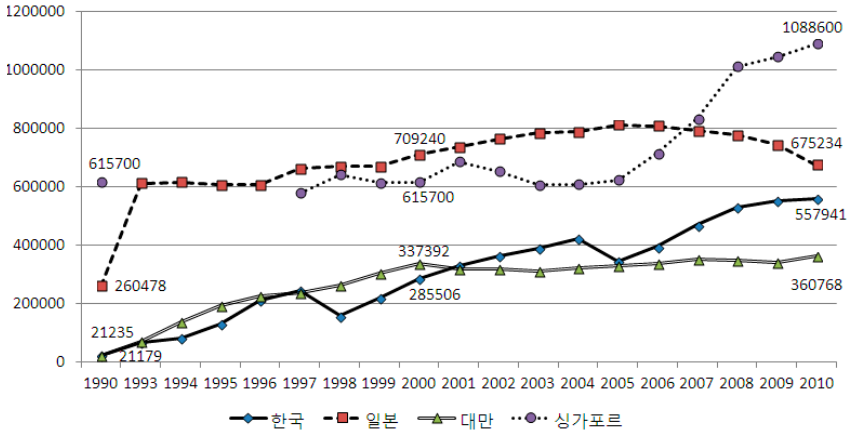


그림 4.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취업이주자(외국인 노동자) 증감추이

자료: 한국: 최병두 외, 2011, 164; 법무부, 2012,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일본: 최병두, 2011, 65; Iguchi, 2012,

대만: National Immigration Agency, Taiwan, 2011, Foreign Residents,

<http://www.immigration.gov.tw/lp.asp?ctNode=29986&CiUnit=16677&BaseDSD=7&mp=2>

싱가포르: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each year,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주: 3국 모두 전문직 취업이주자 포함하며, 대만의 경우 상업, 공학기사, 교사, 전도사, 기능사, 외국 노동자, 기타 등을 합산한 수치임(대만은 1990년이 아니라 1992년 자료임); 싱가포르는 총노동력에서 영주노동력을 뺀 수치로, 1993~1996년 자료는 구하지 못했다.

차지하는 실제 비율은 2.5%에 달한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들은 2010년 총인구의 약 38%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외국인 구성비가 8.3%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되었고, 일본, 한국, 태국 등이 총인구에서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체류외국인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겠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이주로 추정된다(그림 4). 예로, 일본은 이미 1990년에 약 26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 직후 크게 증가하여 1993년 60만명, 2000년 70만명을 넘어서서 2005년 81.1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약 67.5만명 정도를 보이게 되었다. 반면 한국은 1990년 외국인 노동자수는 2만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24.5만명

에 이르게 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로 상당히 감소했으나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4년 42만명에 달하게 되었고 2005년 이주노동자의 유입제도가 변하면서 다소 줄었으나 뒤이어 크게 증가하여 2010년 55.8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대만은 한국과 다소 비슷한 유형을 보이지만 그 증가율은 낮아서 2010년 외국인 노동자수는 36만명 정도이고, 싱가포르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1990년 이미 61.6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그 이후 2005년까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 후반 일본과는 달리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다시 급속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8.8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4.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의 일반적 특성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노동이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포함한다. 첫째, 국제 노동이주는 시기별로 목적지를 달리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근본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60~1970년대 동아시아 노동이주에 관한 통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1970년대 유가 폭등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중동국가들로 국제 노동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연간 200~300만명에 달하게 되었다. 1990년 들어와서 국제 이주의 목적지는 걸프전쟁으로 사회정치적 혼란을 맞게 된 중동국가들로부터 동아시아에서 좀더 발전한 신흥공업국들로 바뀌게 되었지만 이주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수용국들의 경제침체로 국제 노동이주는 다소 주춤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였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에는 약 650~70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시아 국가들에도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주노동이 줄긴 했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러한 국제 노동이주의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1997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이러한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사실, 동아시아에서 국제 노동이주는 1997년 대부분 국가들이 겪었던 외환위기 시기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러한 위기들이 국제 노동이주에 미친 충격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⁶ 그림 2,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8년 유출국들의 국제 노동이주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줄었지만 그 외 국가들은 다소 정체된 상태를 보였고, 위기가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는 대부분 유출국들에서 국제 노동이주는 급속히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08년 이후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은 남아시아 국가들에서 국제 노동이주의 유출은 크게 감소했지만, 필리핀은 계속 증가했고, 다른 국가들도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1~2년이 지난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지역적 또는 세계적 경제위기는 국제 노동이주 유출국보다는 수용국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낮은 국가들보다도 구조적 경제위기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이주 수용국의 경제는 소비 감소 → 판매 부실 → 재고 증가 → 생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고용했던 노동자들도 해고하도록 압박을 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용국들은 추가적인 해외 이주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귀환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면이 일단 해소되면, 기존의 수용국들은 경제침체를 단기적으로

6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용국들은 대체로 이주노동자들을 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즉, 경제적 충격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우선 해고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현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처분될 상품'으로 취급"된다고 주장된다(Wickramasekera, 2002, 27).

벗어나기 위하여 더 저렴한 노동력을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제 노동이주도 늘어나게 된다. 국제 노동이주의 송출국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으로 국내 고용기회의 감소를 겪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 노동이주를 촉진시키게 된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노동이주는 송출국과 유출국의 유형 변화와 더불어 이주 경로도 점차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도시국가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인구 유출국이었다.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구 유입국으로 전환한 한국, 대만 등은 그 이전에는 인구 순유출국이었고, 심지어 일본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미 등지로 이주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로 국제 노동이주를 받아들이는 주요한 수용국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한편으로 중동이나 싱가포르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가지거나 더 발전한 국가들로 노동이주를 유출하지만 또한 동시에 1990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네팔 등으로부터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수용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은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그 동안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국가들 대부분에게 시장개방과 더불어 노동력 국제적 이동에 대해서도 개방적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인접한 국가인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를 유출하게 되었으며, 특히, 베트남은 인접국들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상당한 노동이주자들 기록하게 되었다. 또 다른 변수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을 보이는 중국의 국제 노동이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전 세계에 엄청난 화교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최근의 지구화 추세와 관련된 국제 노동이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중국은 그동안 농촌지역의 대규모 인구들이 도시지역으로 유출하면서 국내적으로 노동력의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이후 도시 유희노동력의 국제적 이동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국제 노동이주의 유형은 흔히 영구이주, 일시이주, 난민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형태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우선 결혼이나 가족 합류, 유학 등을 목적(사회문화적 목적)으로 한 일반이주와 순전히 취업을 목적(경제적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주 간에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나 유학이주 또는 가족합류 등이 본래의 목적뿐만 아니라 결국 노동력의 국제적 이주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국제 이주는 대체로 출신국에서 목적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정주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다른 국가들로 재이주하는 경우,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신국과 수용국 사이를 순회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황정미, 2009). 출신국으로의 귀환은 이주자 본인이 수용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후 귀환하는 경우와 과거 국제 이주를 떠난 사람들의 2,3세 후손들이 다시 민족성을 찾아서 귀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이주과정의 복잡해짐에 따라, 과거와 같이 한 방향으로만 이주가 유출 또는 유입하는 송출국 및 수용국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송출국이면서 동시에 수용국이 된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의 노동이주는 저기능 노동이주가 주를 이루며(최근 전문직 이주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여성으로 구성되는 한편, 대체로 일시적 및 순환적 이주로 이루어진다. 서구 선진국들 간(즉, 북부에서 북부로) 노동이주와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 간 노동이주는 상대적으로 경제 및 기술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즉, 남부에서 북부 또는 준북부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저기능 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최근 동북아시아의 주요 수용국들은 경제 및 기술 수준이 높아졌으며,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초국적 기업활동 및 기술연구직 그리고 지구화에 따른 경제적 및 문화적 시장의 개방으로 교수, 어학강사, 예술흥행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2000년 약 15만명에서 계속 상당히 증가하여 2010년 30만명에 달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경우는 2000년 약 2.7만명에서 2010년 4.4만명으로 증가했다(표 6). 그러나 일본만 전체 노동이주에서 전문직 이주자의 비율이 30~40%를 차지

표 6. 한국, 일본, 대만의 노동이주자 유형별 증감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전문인력(A)	26,981	30,613	34,263	31,261	30,656	35,527	39,985	34,538	38,261	41,413	44,320
	저기능인력(B)	106,915	110,028	115,466	284,192	283,971	224,732	332,367	442,677	511,249	511,160	513,621
	B/(A+B)	0.798	0.782	0.771	0.901	0.903	0.863	0.893	0.928	0.930	0.925	0.921
일본	전문인력(A)	154,748	168,783	179,639	185,556	192,124	180,465	171,781	193,785	211,535	212,896	307,235
	저기능인력(B)	232,121	343,110	363,682	391,253	401,109	423,542	442,396	448,568	450,917	439,325	361,885
	B/(A+B)	0.600	0.670	0.669	0.678	0.676	0.701	0.720	0.698	0.681	0.674	0.541
대만	전문인력(A)	12,301	13,173	16,784	15,462	16,550	15,849	14,493	15,085	13,666	13,769	13,768
	저기능인력(B)	308,122	287,337	288,878	283,239	288,898	297,287	306,418	321,804	316,177	306,408	325,572
	B/(A+B)	0.962	0.956	0.945	0.948	0.946	0.949	0.955	0.955	0.959	0.957	0.959

자료: 한국: 2006년까지, 최병두 외(2011), 2007년 이후 법무부, 2012,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일본: 최병두, 2011, 65; Iguchi, 2012.

대만: National Immigration Agency, Taiwan, 2011, Foreign Residents,

<http://www.immigration.gov.tw/lp.asp?ctNode=29986&ctUnit=16677&BaseDSD=7&mp=2>

주: 3개국 모두 미등록(불법) 취업자는 제외함.

한국: 전문인력은 기업활동, 연구기술관련직, 외국어강사, 예술공연 등을 포함함.

일본: 전문인력은 취업사증소지자(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경영, 법률회계,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문, 행정, 기능 등), 2010년 기능실습생 일부 취업사증소지자로 전환.

대만: 전문인력은 상업, 공학기사, 교사, 진도사, 기공기능사 포함, 저기능인력은 '외국노동임.

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한국과 대만의 경우 10% 미만이며, 그 비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싱가포르 및 홍콩의 경우 일본과 다소 유사하겠지만,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경우는 한국이나 대만과 더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저기능 노동이주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주의 여성화'이다. 대체로 국제 노동이주(특히, 저기능 노동이주의 경우)는 미혼 남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물론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등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노동 이주의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표 3), 수용국들 가운데 특히,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에서는 유입되는 노동 이주의 반 수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다(윤인진, 2010: 62). 국제 노동이주에서 여성들이 담당하는 분야는 주로 간호사나 가사노동으로, 이들은 송출국과 수용국 간 돌봄노동의 연쇄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Hochschild, 2000). 즉, '지구적 돌봄 연쇄'(global care chain)로 불리는 이 연계에서, 수용국의 여성들은 국내 고기능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가사노동을 담당할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이 이 국가들로 이주하게 되면서, 대신 송출국에 남겨진 자녀들은 부모나 친척에게 맡겨지는 방식으로 송출국과 수용국 간 돌봄의 연쇄고리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촉진되는 이주의 여성화는 젠더와 관련된 국제적 문제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연쇄고리는 여성의 경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단순히 젠더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적 노동시장의 계급적 연결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동아시아 국제 이주노동에서 이와 같이 주를 이루는 저기능 노동이주는 체류기간이 한정되고, 영주권이 제한된 형태로, 거의 일시적이고 순환적인 특성을 가진다. 예로, 저기능 노동자에 대한 체류기간은 최근 한국과 일본 5년, 대만 12년, 싱가포르 6년, 말레이시아 5년으로 한정되며(최근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추세임), 일단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고국에서 일정 기간을 지난 후 재입국할 가능성이 허용되기도 한다. 아시아의 주요 수용국들이 이주노

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체류기간을 한정하고 영주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국의 노동 수요가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저기능 이주노동의 유입이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기회를 잠식하거나 잠재적으로 저해할 것으로 우려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영구)체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국제 노동이주에서 미등록 또는 불법이주자는 상당히 많은 수자를 보이며, 수용국들의 정책(불법이주자의 양성화 및 입국·체류 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급변하면서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억압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불법(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2011년 약 250만명의 불법체류(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으로 태국이 2009년 70만명의 불법체류(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7). 한국, 일본에도 각각 7만명 정도, 그리고 대만에는 3.3만명 정도의 미등록(불법) 노동이주자들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가 2000년대 초반 전체 이주노동자의 60%를 상회하였으나 고용허가제로의 전환 이후 그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2010년에는 10%대로 떨어졌다. 일본의 경우 불법잔류 노동자의 비율이 2000년대 초반 30%를 상회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2010년에는 10.5%로 줄어들었다(그림 5).

수용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다양한 방법, 예로 입국 규제 강화, 거주지 등록, 작업장의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이들의 불법적 고용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수용국들은 때로 양성화를 통해 이들을 관리하고자 한다. 양성화란 합법적인 고용권리나 거주권리를 갖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을 의미한다. 예로 태국은 1992년 처음 양성화를 시도한 후 수차례에 걸쳐 양성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노동이주를 관리하고자 했다. 말레이시아 역시 주기적으로 통제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불법 이주노동자의 양성화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체류조건의 변경(예로 2004년 중반 약 40만명이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추방되었

표 7. 미등록(불법) 노동자 현황

(단위: 천명)

	연도	추정치	주요 특성
한국*	2009	181	비자만료
일본	2011	78	비자만료
대만	2011	33	비중국노동자 비자만료
말레이 시아	2011	2500	양성화 적용 (불법 입국)
태국	2009	700	미등록 양성화 (불법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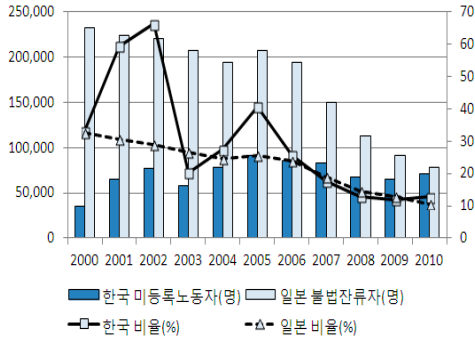


그림 5. 한국 및 일본의 미등록(불법)노동자

자료: 표 6과 같음.

자료: OECD 2012, 184

* 한국의 경우 노동자만 아니라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의 수로 추정됨.

고, 상당 수는 말레이시아로 재입국을 허용했다) 등을 통해 이들을 관리, 통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산업연수제도 또는 기능인턴제도 등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능연수를 명분으로 이들의 지위를 제한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등록(불법) 노동이주들은 수용국의 다양한 제도에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양성화, 추방-재입국, 또는 연수제도 등은 이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새로운 불법 이주를 만들어내게 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등록 이주자들은 수용국에서의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은 거주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거나 또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이기 때문에, 체류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권이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흔히 거주국 내에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작업장에서 고용자나 내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에 당하게 된다. 특히, 저기능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 합류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가족합류 또는 거주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미등록

이주자의 자녀 양육은 복지 및 교육 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5. 결론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적 통합과 더불어 국제 노동이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 선진국들 간이나 이 국가들로의 이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간 이주에서 더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상당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노동)이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대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된다. 여전히 서구에서 제시되었던 기존 이론들을 배경으로 논의가 전개되거나 기존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 논문 역시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는 기본적으로 지구화 과정을 배경으로 송출국과 수용국 간의 차이 요인과 관계 요인에 따라 고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 사회로의 전환 이후 동아시아 국제 이주의 전반적 전개 과정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노동이주는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그 첫 번째 시기는 1970년대 유가폭등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중동국가들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노동력이 이주한 시기이다. 그 이후 중동국가의 이주노동자 수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1990년대 들어와서 한편으로 1990년 걸프전쟁의 발발로 인한 중동지역의 정치사회적 혼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동북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조용하는 국제 노동이주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이러한 국제 노동이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일반적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첫째, 197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는 목적지의 역동적 변화와 더불어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둘째, 송출국과 유출국의 유형 변화와 더불어 이주형태 및 경로도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되었다. 셋째, 저기능 노동이주가 주를 이루면서 상당 부분 여성으로 구성되며, 대체로 일시적 순환적 이주로 구성되고 있다. 넷째, 미등록(불법) 이주자가 상당히 많으며 수용국의 정책에 따라 변동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노동권 및 인권 억압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노동이주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전개과정과 이에 내포된 일반적 특성들은 포괄적 설명으로 의미를 가지지만, 이러한 설명은 실제 이 지역 국가들이 가지는 개별적 특성들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한다. 즉,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노동이주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개별 국가들이 가지는 인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세부 요인들과 이들을 유형화한 국가간 차이 요인 및 관계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통해서 더욱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이주는 단지 이주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나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른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2.10.26 접수, 2012.12.04 수정, 2012.12.28 게재확정

참고문헌

- 문남철, 2006, 동아시아 자본 및 노동 이동의 구조적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 215-228.
- 미우라 히로키, 2011, 이주노동자문제와 동아시아 다층거버넌스: 연성법 관점에 기반한 분석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51(3), 153-185.
- 석현호, 2003, 국제 이주론의 검토, 석현호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15-48
- 윤인진, 2010, 동아시아 국제 이주의 현황과 특성, 윤인진·박상수·최원오 편,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고려대 아연출판부, 47-91.

- 윤인진·박상수·최원오 편, 2010,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고려대 아연출판부.
- 이정남, 2007, 동북아 국가체제와 인구이동: 동북아적 특성과 원인, *신아시아*, 14(2), 90-111.
- 최병두, 2011, 다문화공생: 일본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역할, 푸른길.
- 최병두·임석희·안영진·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공간, 푸른길.
- 최영진, 2010,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의 동학: 경향, 유형 및 개발과의 연계, *신아시아*, 17(4), 191-221.
- 최호림, 2010, 동남아시아의 이주노동과 지역거버넌스, *동남아시아연구*, 20(2), 135-178.
- Ananta, A. and Arifin, N. (eds), 2004, *International Migration in Southeast Asia*,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 Battistella, G., 2004, Return migration in the Philippines: issues and policies, in D.Massey and J. Taylor (eds), *International Migration: Prospects and Policies in a Global Market*, Oxford Univ. Press, Oxford.
- Findlay, A. and Jones, H., 1999,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emergence of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 *Geoforum*, 29(1), 87-104.
- Hewison, K. and Young, K. (eds), 2006, *Transnational Migration and Work in Asia*,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Hochschild, A.R., 2000, Global care chain and emotional surplus value, in W.Hutton and A. Goddens (eds), *On the Edge: Living with Global Capitalism*, Jonathan Cape, London, 130-146.
- Iguchi, Y., 2012, Demographic causes and consequences of Asian migration (paper presented to the OECD-IDE Roundtable meeting on 17-19 January 2012. 파워포인트 자료임).
-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0, *World Migration Report 2010: The Future of Migration, Building Capacities for Change*.
- Lan, P.C., 2006, *Global Cinderellas: Migrant Domestic and Newly Rich Employers in Taiwan*, Duke Univ. Press, Durham and London.
- Li, P. and Roulleau-Berger, L. (eds), 2012, *China's Intern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Routledge, London. 284.
- Lucas, R.E.B., 2008,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n a globalizing economy, Carnegie Paper.
- Martin, P., 2009, Mi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trends, factors, impacts, Human Development Research Paper, 2009/32, UN Development Programme.
- OECD, 2012,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2*.
- Stalker, P., 2000, *Workers without Frontiers: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tion, ILO, Geneva.

UN Population Division, 2012, Population Facts.

Wickramasekera, P., 2002, Asian labour migration: Issues and Challenges in an era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Papers 57, ILO, Geneva.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n East Asia: Development Proces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Byung-Doo Choi*

Abstract_This paper considers difference factors and relation factors of migration in a synthesis of existing theories or approach methods of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and then deals with development proces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n East Asia.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e first of all tha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has increased continuously in spite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and of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even though the main destination countries were shifted from Middle East to East (North East, in particular) Asian countries; secondly, form and channels of international migration have been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with changing patterns of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thirdly, low-skilled labour has been dominant, including female workers in a considerable rate, and constituting temporal and circular migration; and finally, the number of undocumented (illegal) labour immigrants are still high, though decreasing gradually with fluctuation by policies of receiving countries, which provides political rationale for restraints of labour and human rights.

Keywords_East Asia,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Difference Factors of Migration, Relation Factor of Migration.

* Daegu University, Professor, Geography, bdchoi@daegu.ac.kr